
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(정동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6810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12. 20.

발 의 자 : 정동영 · 조인철 · 박민규
박주민 · 임미애 · 정태호
서영교 · 이기현 · 최민희
민형배 · 윤준병 · 김한규
김민석 · 김 현 · 이정현
진선미 · 이훈기 · 김영호
의원(18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오늘날 뉴스 등 정보 획득, 금융서비스 이용, 지도, 택시와 버스 등 교통수단 예약, 상품 구매 및 예약, 콘텐츠 소비 등의 전반적인 활동이 모바일을 통해 가능해지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이동통신서비스는 국민들의 기본생활에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음.

그러나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데이터용량이 모두 소진되는 경우에는 긴급상황 시 정보를 찾거나 재화를 구매하거나 연락을 취하기가 어려울 수 있음. 어르신과 청소년 등에게는 긴급상황 등에 대비하여 데이터용량이 모두 소진되더라도 최소한의 데이터 이용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. 또한 이같은 통신기본권은 차후 전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음.

이에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어르신
과 청소년 등에게 기본 데이터 소진 이후에도 우선적으로 과학기술정
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속도의 데이터용량을 무료로 제공하도록
함으로써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최소한의 이용권을 보장하고자 함
(안 제29조의2 신설).
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9조의2(기본 데이터 이용 보장) ① 「전파법」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고령자·청소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용자가 사용 중인 요금제에서 제공되는 약정 데이터량을 소진한 후에도 추가 이용요금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속도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
② 기간통신사업자는 제38조제1항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여 도매제공을 받는 다른 기간통신사업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도매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도매제공을 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p><u>제29조의2(기본 데이터 이용 보</u> <u>장) ① 「전파법」에 따라 할</u> <u>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</u> <u>기통신사업자는 고령자·청소</u> <u>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</u> <u>용자를 대상으로 이용자가 사</u> <u>용 중인 요금제에서 제공되는</u> <u>약정 데이터량을 소진한 후에</u> <u>도 추가 이용요금 없이 과학기</u> <u>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</u> <u>시하는 속도로 데이터를 이용</u> <u>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② 기간통신사업자는 제38조제</u> <u>1항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여</u> <u>도매제공을 받는 다른 기간통</u> <u>신사업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</u> <u>행하기 위하여 도매제공을 요</u> <u>청하는 경우 도매제공을 하여</u> <u>야 한다.</u></p>